

“반려동물 덕에 우대금리~” 펫팸족 겨냥 예·적금 봇물

펫코노미 시장 겨냥 금융권 주목
1·2금융권 예·적금 상품들 출시
고객맞춤형·생활밀착형 등 다양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금융 상품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특히 1·2금융권이 반려동물 예·적금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펫팸족(펫+패밀리)의 눈길을 끈다. 고객 취향을 공략한 생활밀착형 상품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1·2금융권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예·적금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지난 4월 SBI저축은행은 ‘SBI스타펫 적금’을 선보였다. SBI스타펫 적금의 기본 이율은 연 2.1%지만, 자신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 사진을 페이스북이나 네이버카페에 업로드해 인증하면 우대금리를 통해 연 3.0%의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JT저축은행은 지난해 반려견 캐릭터

| 은행명 | SBI저축은행 | KB국민은행 | 신한은행 |
|-------------|--|---|--|
| 상품명 | SBI스타펫적금 | KB펫코노미적금 | 위드펫적금 |
| 계약기간 | 12개월 | 12~36개월 | 12개월 |
| 기본금리 | 연2.1% | 최대 연2.20% (36개월 기준) | 최대 연 2.20% |
| 우대 이율조건 | 반려동물사진을 페이스북이나 네이버카페에 업로드 인증(+0.2~0.9%) | 친구추천(+0.2%)적금계약기간 중 KB국민펫코노미카드 보유(+0.2%) | 영업점방문후 동물등록증 제시 (+0.5%)펫다이어리에 사진 5개 이상 등록(+0.5%) |
| 기타 추가 정보 | 만기이자(세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기부금으로 출연(SBI저축은행 부담) | 만기이자(세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기부금으로 출연(KB국민은행 부담) |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시 약정 이자율로 해지 |



찌꼬를 활용한 ‘찌꼬 희망통장’을 개설한 데 이어 반려견 오디션 ‘JT왕왕 콘테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JT저축은행 관계자는 “JT왕왕콘테스트는 올해 중 시행될 예정이며, 반려동물과 관련된 예·적금상품은 구상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1금융권은 일찍이 반려동물 예적금 상품을 출시하고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가장 먼저 반려동물 관련 상품을 출시한 KB국민은행은 ‘KB펫코노미 적

금’을 출시했다. ‘KB펫코노미 적금’은 36개월 기준 정액 적금의 경우 기본이율은 2.2%이지만 친구추천을 하거나 적금계좌 계약기간 중 KB국민 펫코노미카드를 보유하면 각각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 만기이자(세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선 KB국민은행이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기부금으로 출연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위드펫(With Pet)

적금’을 출시했다. 위드펫(With Pet)적금은 1년만기 적금 상품으로 매월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동물 등록증 보유시 최고 연 2.0% 이자를 제공하며, 반려동물 치료비를 위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 약정금리로 해지가 가능하다. 위드펫 적금은 5월 기준 총 6600좌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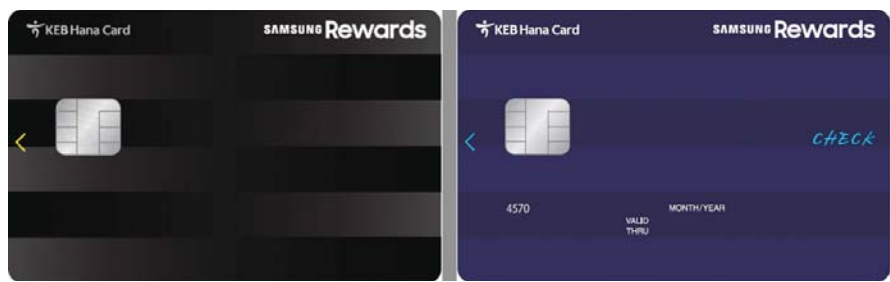
금융권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예적금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는 이유는 먼

저 반려동물시장의 급성장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반려동물 시장규모는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으며, 오는 2020년에는 6조원대 시장으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금융당국이 시중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까지 단계적으로 예대율 규제를 도입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1금융권과 상호금융의 경우 예대율을 최대 100%로 규제하고 있고, 저축은행은 2021년까지 예대율을 100%로 낮추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황이다. 예대율은 예금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비율이다. 대출액 만큼 예금액이 일정부분 증가하지 않으면 예대율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신규 고객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펫코노미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돼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는 추세”라며 “제공할 수 있는 금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고객맞춤형, 생활밀착형 등 차별화 상품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삼성 리워드 하나카드

/하나카드

하나카드, 삼성 리워드 포인트 적립카드 출시

하나카드는 삼성전자와 삼성페이 이용 금액의 최대 2%를 삼성 리워드 포인트로 적립하는 ‘삼성 리워드 하나카드’를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삼성 리워드 하나 신용카드’는 전월 실적 조건 없이 삼성 페이로 결제 시 1%, 일반 카드로 결제 시 0.5%를 적립해주는 기본적립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난달 사용실적 30만원 이상, 삼성 페이로 건당 2만 원 이상 이용 시 1% 추가 적립해 주고, 일반 카드로 결제 시 0.5% 추가적립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적립 서비스와 추가 적립 서비스로 최대 2%가 제공되며 손님들은 월 최대 10만 삼성 리워드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 리워드 하나 체크카드’는 이용실적 조건 없이, 삼성페이 이용금액(건당)이 1만 원 이상이면 0.5%, 10만 원 이상이면 1%의 삼성 리워드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 리워드 하나 신용카드’의 연회비는 국내전용 1만 원이며 ‘삼성 리워드 하나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다. /나유리 기자

우리은행, 임팩트 투자펀드 ‘50억’ 첫 출자

펀드 총 200억 규모로 조성
창업벤처기업 투자기반 마련

우리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임팩트 투자 펀드’에 50억원 출자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임팩트 투자 펀드는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펀드다. 일자리 창출, 환경 개선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재무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투자한다. ‘크레비스-라임 임팩트 1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는 7월 중 결성되는 국내 최초의 임팩트 투자 펀드로 우리은행은 50억



원을 투자한다.

펀드는 총 200억 규모로 조성되며, 10년간 운영된다. 우리은행은 전체의 25%를 투자해 최대 민간투자자로 참여하고, 정책자금을 투자하는 한국성장금융(65%), 공동운용사인 크레비스파트너스

(3.5%)와 라임자산운용(1.5%) 등이 투자자로 참여한다. 펀드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정의된 사회·환경·보건·빈곤·기근 등의 문제 해결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투자금의 60% 이상 투자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임팩트와 창업벤처기업 투자를 통한 동반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시중은행 최초로 임팩트 펀드에 투자를 결정했다”며 “이번 투자결정이 세계적으로 확대 중인 임팩트 투자가 국내에서도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미 기자 smahni@

“속싸개, 손바느질 한땀한땀 만들어 선물해요”

신한銀 중·고등학생 봉사활동 이벤트

신한은행은 중·고등학생 고객들에게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첫번째 행사는 무연고 신생아들이 사용할 속싸개를 손바느질로 만들 수 있는 키트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시간이나 장소의 구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속싸개를 만들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봉사활동이 진행된다.

신한 청소년 행복바우처를 사용해 포인트 적립 또는 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고객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이벤트 신청기간은 8월말까지다.

기존 행복바우처 사용 고객도 신청할 수 있고 신한은행 홈페이지, SOL(솔), 모바일 앱 등 고객 중 500명에게 봉사활동



기회가 제공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참가자들이 만드는 속싸개는 신생아들이 체온을 유지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해 편하게 잘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뜻깊은 봉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고등학생 고객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계획 중이다”라고 말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윤의연 우리카드 부사장(오른쪽)과 강승하 롯데멤버스 대표이사가 지난 2일 롯데멤버스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제휴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우리카드

엘포인트 한도없이 적립 ‘우리카드’ 출시

롯데멤버스-우리카드 전략적 MOU

우리카드가 카드의정적엘포인트(L.POINT)신용 및 체크카드’를 9일 출시했다.

롯데멤버스와 우리카드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통일로에 위치한 롯데멤버스 본사에서 엘포인트 플랫폼을 활용한 상품개발 및 공동 마케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식을 체결했다.

‘카드의정적 엘포인트’신용카드는 전월 이용금액 30만 원 이상이면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엘포인트 0.7%를 한도 제한 없이 적립할 수 있다. 영화, 외식, 커피, 대중교통 등의 업종에는 3%,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 등 쇼핑 업종과 주유 및 여행 및 레저 업종에는 1%의적립이 제공된다.

또한 롯데 계열사에 해당하는 가맹점 일 경우 기본으로 제공되는 포인트 외에 엘포인트 1%가 추가 적립되고, 해당 카드를 엘 페이(L.pay)에 등록하여 이용하면 또 1% 적립이 추가된다. /나유리 기자

NH농협은행

비대면 은퇴설계 오픈

NH농협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비대면 채널 은퇴설계시스템 내 상담예약 프로그램을 오픈하고 8월 말까지 ‘올(All)100 플랜 은퇴설계 희망드림(Dream)’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고객이 NH농협은행의 비대면 채널(올원뱅크·스마트뱅킹·인터넷뱅킹 등)로 은퇴설계시스템에 접속해 자가진단 후 영업점을 방문해 전문가 상담까지 진행된 경우 자동응모 처리된다. 매월 추첨을 통해 100명씩(총 200명)에게 농산물상품권 5만원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8월과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금융상품마켓 이벤트 당첨자 발표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마케팅부문 이창호 부행장은 “은퇴설계가 비대면 상담예약 프로그램 통해 젊은 층부터 은퇴준비에 관심을 갖는 40~50대 연령층까지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NH농협은행은 고령화시대 고객의 행복한 은퇴 후 삶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미 기자